시연施連칼럼

경주 운곡서원 유연정의 재발견

권오신
칼럼니스트, 좌윤공파회장

운곡서원(雲谷書院) 유연정(悠然亭)에 가을이 내려앉았다.

2백 50년 풍상(風霜)을 견딘 압각수(鴨脚樹,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노란 은행잎 서원 광장에 융단을 깐 듯 곱게 단장됐다. 이른 새벽부터 서원을 찾은 답사객들로 인해 진입로가 막히고 두 군데 주차장은 차 댈 곳이 없다.

경주 운곡서원 유연정(悠然亭, 1811年 순종 11년 창건,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345호)은 경주(慶州)가 자랑하는 조선후기(朝鮮後期)에 창건된 정자(亭子)다. 특히 유연정(悠然亭) 우물 정(井)자 형태의 천정에서 등용(登龍, 문과급제文科及第)을 상징하는 잉어, 쏘가리와 귀한 장수를 비는 학(鶴)과 연(蓮), 그리고 연꽃 봉오리가 들어간 익공(翼工, 처마와 기둥 사이 장식물)이 발견돼 우리나라 고고학계(考古學界)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경주시(慶州市) 학술(學術)조사팀이 지난 9월 3일 오전 현장 답사를 했다.

조선(朝鮮) 후기의 빼어난 고건축 미(美)와 잉어, 쏘가리, 학(鶴), 그리고 애련설(愛蓮說)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유연정(悠然亭)이 고고학계(考古學界)에 보고되면 현재 경북도 문화재에서 국가문화재(國家文化財)로 격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잉어와 쏘가리, 학, 연꽃의 사계를 건물에 장식한 조선(朝鮮) 후기 건물로는 하삼도(下三道, 충청 전라 경상도를 이르는 말) 일대에선 유일하다.

지난 6월 21일 권택관(權宅官 37世) 후손에 의해 확인된 잉어와 학 그림은 유연정(悠然亭)의 우물 정(井)자 형 천정 추녀를 고정시키는 달동자(강다리, 고건축용어) 비녀 꽂이에 3마리가 먹으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같은 날 권진택(權鎭宅) 서원 유사가 확인한 정자 출입문(出入門) 쪽 천정 달동자 비녀 꽂이에서도 전면엔 쏘가리가, 뒷면엔 비상(飛翔)하는 학(鶴)이 그려졌었다.

200년 세월이 흘렀지만 잉어와 쏘가리, 학(鶴)은 사실화를 보는 것처럼 선명했다. 쏘가리는 등에 뾰족한 침을 달고 있다. 우리 민화에 나오는 쏘가리는 대궐(大闕)의 임금을 상징, 등과(登科) 후 대궐에서 벼슬살이를 하라는 뜻을 담아 한 마리만 그렸다.민화 학자들은 쏘가리(鱖, 쏘가리궐) 궐(鱖)자와 대궐의 궐(闕)자의 음이 같아서 같은 등용을 뜻하지만 잉어보다 한 수위의 대접을 받는 것으로 풀이했다.

유연정(悠然亭) 천정에 조각된 연(蓮)은 꽃이 피고 지고 연씨를 품는 주돈이(周敦頤 960~1127 북송시대 성리학의 기초를 닦은 학자)의 애련설(愛蓮說)을 실감나게 표현 했다. 특히 유연정(悠然亭)을 지탱하는 3칸 8개 싸리나무 도리 기둥과 지붕 처마 선을 떠받치는 16개 익공마다 연꽃 봉오리 모양 조각을 넣어 정자의 미(美)를 최고로 끌어올렸다.

200년 전 유연정(悠然亭)을 설계했던 선조상들은 당대의 최고 도목수를 모신 미적 감각을 지녔다. 정자 앞을 흐르는 용추(龍湫) 직벽에 정자를 짓고 도연명(陶淵明, 365~427 송나라 초기시대의 시인詩人)의 한시(漢詩) "음주(飮酒)에서 유연(悠然)을 따와 정자 이름을 지었다.

도리 기둥과 천정, 추녀를 잇는 지붕 선에 자손들의 등용문(登龍門, 대과급제大科及第)을 상징하는 잉어와 쏘가리, 비상(飛翔)하는 학(鶴), 그리고 꽃 중의 꽃(君子)을 상징하는 연꽃의 사계를 천정 네 곳에 비치해서 고귀한 후손이 끊이지 않기를 염원했다.

또 서까래와 대들보가 겹치는 장면을 가리기 위해 우물 정(井)자 천정을 배치한 방식도 하삼도(下三道) 고건축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특별(特別)한 건축(建築) 형태다. 서원(書院)은 정자 큰방 안쪽 벽지로 가려진 곳에도 이 같은 그림이나 조각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돼 학술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운곡서원(雲谷書院)을 창건하고 보존한 선대(先代)들이 경주시(慶州市) 강동면 운곡(雲谷) 용추(龍湫) 직벽에 건립한 유연정(悠然亭)은 크지도 작지도 않다. 도연명(陶淵明)의 자연사상을 따르고 주돈이(周敦頤)의 성리학(性理學) 이론(理論)의 하나인 광풍제월정(光風霽月亭, 비바람이 몰아친 다음 날의 고요함) 정신을 현판(懸板)에 새겨 비록 궁벽한 시골에 태어났어도 용추(龍湫)의 상서로운 기운을 타고 나라와 가문을 빛내는 후손이 먼 미래에도 이어져 나오기를 염원했다.

대전효문화뿌리축제 개최

대전효문화뿌리축제가 대전시 중구 뿌리공원 일대에서 10월 11일(금)부터 13일(일)까지 개최되었다. 12일 토요일에 진행된 문중입장 퍼레이드에는 안동권씨를 비롯한 105개 문중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제15회 뿌리축제는 '효와 뿌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이번 대회에는 대한고려인협회와 대전중구문화원이 고려인 뿌리찾기 일환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35명과 성인 65명의 고려인 방문단 100여명도 참여하였다.

안동권씨 대전종친회에서는 권용기 대전종친회장을 비롯하여 권동원 참의공 종중 이사장, 권인순 탄옹공 종중 이사장, 권선상 전 교수, 권근원 태영조경(주) 회장, 권오상 대종회 사무총장, 권행완 편집국장 등 50여 명의 족친들이 9시 20분 경에 집합하여 관복과 도포를 입으며 축제의 메인 행사인 문중퍼레이드를 준비했다. 특히 어린이가 한복을 곱게 입고 갓을 쓰고 있어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권용기 회장 외손자 류동훈이라고 했다. 몇 학년이냐고 묻자 대전 동화초등학교 3학년이란다. 한복을 입으니 멋있고 의젓하게 보인다고 했더니, 처음 입어서 그런지 불편하다고 했다. 동훈이는 외사촌 오지후(4세, 권용기 회장의 딸 권선희씨의 딸)의 손을 꼭 잡고 안동권씨 문중입장 퍼레이드 맨 앞에 서서 입장했다. 뒤이어 대전종친회 회원들이 안동권씨 깃발을 따라 자랑스러운 나의 뿌리 안동권씨 피켓과 안동권씨 시조 묘소 피켓 그리고 권율 도원수의 피켓을 들고 입장했다. 동훈이와 지훈이는 지나가는 곳마다 인기짱이었다. 박수와 환호가 그치지 않았다.

문중입장 퍼레이드가 끝나자 기념촬영을 하였다. 대전종친회에서는 대회 기간 내내 부스에서 권율장군 입체퍼즐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젊은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프로그램을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이번 대회에는 어린아이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띄어 어른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어린이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권오상 사무총장은 점심 식사 자리에서 지난번 이치대첩 기념제에 참의공 종중에서 150만원 찬조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권용기 대전종친회장은 이번 뿌리축제에 대종회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권동원 참의공 종중 이사장은 오늘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아나운서가 안동권씨를 소개할 때 멘트가 조금 마음에 걸린다면서 대종회에서 시조 태사공과 성화보 및 과거급제 그리고 권율장군과 종보 발간 등의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다시 정리해서 그 멘트만 들어도 대대적으로 전국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오상 사무총장과 권행완 편집국장은 뿌리공원 족보박물관과 만성산의 안동권씨 성씨비를 둘러보았다.

권행완 편집국장

동훈이와 지후(오른쪽)

안동권씨 성씨비

고려인 방문단

행주서원 추향제 봉행

행주서원(원장 권정택) 추향제가 10월 17일 10시 30분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에 위치한 행주서원과 기공사에서 권정택 원장을 비롯하여 권오돈 추밀공파종회 회장, 권경일 추밀공파 석주공 종중 회장, 권행완 편집국장, 변온섭 사단법인 봉암서원 이사장, 우에다 도시꼬(上田敏子) 등 세계평화여성연합 덕양지부 회원 4명을 포함한 내외귀빈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이날 헌관에는 초헌관 강흥강 고양특별시문화원장, 아헌관 김충신 유도회 전 고양지회장, 종헌관 권성옥 안동권씨 문중 대표, 선주만 보성선씨 문중 대표, 변성석 황주변씨 문중 대표, 이남무 전주이씨 문중 대표, 정종휘 압해정씨 문중 대표로 분정했다. 대축에는 정대채 용강서원 전 원장, 집례에는 이현규 행주서원 부원장, 집례 해설에는 정영애 행주서원 예절 강사, 상례는 김광주 충장사 제전위원장이 각각 맡았다.

특히 집례 해설을 담당한 정영애씨는 권율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이치대첩에서 육지전 사상 최초로 승리하여 임진왜란의 전세를 역전시켰고, 수원 독산성 전투에서도 기발한 세마(洗馬)의 지략을 발휘하여 승리한 후 행주대첩에서도 2300명이 3만의 왜군을 맞아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은 첫째, 문무를 겸전한 권율장군의 뛰어난 전술. 둘째, 첨단의 무기 신기전의 활용. 셋째, 민관군의 협동심. 넷째, 행주산성의 지형을 이용한 전략이었다고 설명했다.

권정택 원장은 인사말에서 날씨가 화창한 가을 날씨다. 찾아 주셔서 감사하다. 행주서원은 고양에서 가장 오래되고 으뜸가는 서원으로 국가지원금과 헌성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공사에는 권율 도원수를 주벽으로 7분을 봉안하고 있으며 초하루와 보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잔을 올리고 있다. 현재 7개 문중 중에 4-5개 문중만 참석하고 나머지 문중은 불참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문중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초헌관 강흥강 원장은 제례가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는 요즘 각 문중에서 많이 오셔서 감사하다.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고 유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권오돈 회장은 전통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참석하도록 하여 훌륭한 전통을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변온섭 이사장은 변이중 선생 13대 후손으로 현창사업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임란 당시 2300명으로 3만의 왜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화차의 위력이 컸다. 승리의 주역이라 할 수 있다. 서거 420주년을 맞이하여 도비 25억과 군비 25억 총 50억원을 들여 화차전시체험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내년 봄에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여기에 모셔져 있는 7분의 희생정신과 살신성인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위대한 선현들께 감사드린다. 그래서 행주대첩기념행사는 국가행사로 격상시켜야 마땅하다. 너무 아쉽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전쟁 중에 무명용사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럼에도 무명용사는 제례에서 누락되어 있다.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 무명용사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권영창 대종회 회장과 추밀공파대종회 회원 일동, 권경일 추밀공파 석주공종회 회장, 고양유림종암서예원장이 화환을 보내 봉축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양촌 권근 선생 학덕 전국 한시지상백일장 시상식 개최

성균관유도회 포항지부에서는 9월 30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새마을로 331-6에 위치한 포항산림조합 숲마을 대강당에서 문충공(文忠公) 양촌(陽村) 권근(權近) 선생의 학덕(學德)을 시제(詩題)로 하는 전국 한시(漢詩)지상백일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시지상백일장은 참가자들이 직접 참가하여 시를 짓지 않고 주최측에서 제시한 시제에 맞춰 한시를 지어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번 제16회 전국 한시 백일장에는 전국에서 270명이 응시하여 43명을 시상했다. 장원에는 포항에 거주하는 장대원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차상에는 김인숙(수원)씨, 차하에는 송성호(포항)씨가 각각 차지했다.

권오협 문충공 회장은 시상식 축사에서 양촌 권근 선조님의 학덕과 성리학을 전국한시지상백일장을 통해 널리 알려주신 성균관유도회포항지부(회장 정규섭)와 포항 유림께 깊이 감사드리며, 전국에서 백일장에 참가해주신 참가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권오협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

충장공 권율장군 피규어 기증

김영호 피규어킴(주) 대표이사가 안동권씨 대종회에 10월 23일 권율장군 피규어를 기증했다. 김영호 대표이사는 피규어킴에서는 국민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한국의 역사적 위인 50인의 피규어를 애국하는 마음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역사적 위인 중 두 번째로 권율장군 피규어를 제작하여 대종회에 기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권영창 회장은 권율장군 피규어를 제작하여 기증해 주셔서 고맙다. 기증하신 피규어는 유리상자를 마련하여 대종회에 상시 비치해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권율장군 피규어 제작은 해외 모 박물관에 소장 중인 갑주를 참고하는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고 말했다. 역사적 위인 중 두 번째로 해외 모 박물관에 소장 중인 갑주를 참고하여 권율장군 피규어를 제작하여 대종회에 기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영호 대표이사는 12월 중에 안양시청 별관에 상시 전시 준비 중에 있으며 안동권문의 많은 분들이 권율 장군의 피규어를 보고 권율장군의 공적과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주연 전 안동종친회장
안동사범병설중학교 졸업 70주년 동창회 개최

권주연 전 안동종친회장이 안동사범병설중학교 졸업 70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안동 리첼호텔에서 동창회를 열었다.

권주연 전 회장을 포함한 1954년 졸업생들은 현재 45명이 생존해 있으며, 이날 동창회에는 30여명이 참석하여 우정과 추억을 되새기며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권주연 전 회장은 "우리가 이 나이에 다시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사진·권주연 전 안동종친회장

안동사범병설중학교는 해방 후 1948년 설립되고 학교는 안동향교 터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6.25 사변이 발발하여 폭격으로 학교가 없어지고 은행나무도 뼈다구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 교육 때문에 짚으로 교실을 만들어 수업을 해야만 하는 우여곡절을 겪기고 했다. 안동사범병설중학교는 1963년 2월 안동사범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안동사범학교와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 안동시청에 들어서면 안동사범병설중학교 교적비를 확인할 수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

시 독자투고

가을 향기

권순채

산과 들에 물던 나뭇잎
하늘 향해 치솟는 가운데
저녁 놀빛이 곱게 피워 오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국화 짙은 향기에 취해
허리 춤에 품고 가네